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통본문) **은혜와 평강**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를 가리킨다(행 17:4).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의 영적인 주소를 보인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키며 그것은 구원의 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엡 2:8) 성화를 이룬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전 15:10).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성화도 영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 ‘평안’은 구원의 결과이다. 이 단어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큰복이다.

[2-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은 중간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KJV, NASB).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役事)가 있었다. ‘역사(에르곤 ἔργον)’라는 원어는 ‘행위’라는 뜻

이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야고보서 2:17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다. 참 믿음은 순종의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23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또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며 선한 일에 힘쓸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참는 마음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은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소식(요 3:16)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신약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음을 보이는 사랑스런 명칭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일부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머지를 죄 가운데 버려두셨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며 복을 받은 자들이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전도자가 자기도 믿지 않는 내용을 남에게 전하여 믿게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실을 가져왔던 것이다.

[6-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道)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너희 믿음에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없었음이니라.

‘많은 환난’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큰 방해거리이었을 것이다. 마귀는 환난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한다. 그러나 구원이 단지 현세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심을 보인다. 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순종 생활과 또 전도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구원은 사람의 변화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변화,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이었듯이, 데살

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한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주위에 널리 퍼져나갔다.

[9-10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각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는 바는 두 가지 요점이었다.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무지요 죄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 지식이요 의(義)이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뿐이시다. 우리의 근본적 믿음은 바로 그 분을 알고 그 분을 섬기는 데 있다. 그것이 영생이 된다(요 17:3).

다른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재림, 마지막 심판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우리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의심치 말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다(고전 13:13).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감사의 바른 이유이다. 우리는 단지 몸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과 물질적 여유나 사회적 평안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들의 소문은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하나님의 선택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교훈에 대한 순종이다. 우리는 선택의 표를 가져야 한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

님을 섬기게 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었고 구주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알지 못했었으나,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큰 음녀에 대한 환상**

[계 17:1-2]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로 증거되었다. ‘많은 물’은 15절에 증거하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그 큰 음녀는 온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활동하는 자이다. 그의 영향력은 세계적이다. 그는 세계적 인물 혹은 단체이다. 특히 그는 세계의 정치가들과 결탁되어 있다. 그의 음행은 영적인, 육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다. 그는 사상적으로 참된 종교를 변질시켜 사람의 다양한 사상들과 혼합시키고 도덕적으로 악과 음란과 거짓을 조장하는 자이다. 본문은 온 세계의 정치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적, 도덕적 음행에 빠질 것을 암시한다.

본장의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그 큰 음녀를 악인들의 세상으로 보는 견해이다.¹⁾ 그러나, 그 음녀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자이며(2절), 일곱 산 위에 앉은 자이며(9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18절),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할 자들임을 생각할 때(18:4), 그는 단순히 악인들의 세상과 동일시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는 그 큰 음녀를 로마 천주교회로 보는 견해이다.²⁾ 그 근거는, 첫째, 그가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다.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천주교회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세력 집단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둘째, 천주교회는 기독교회의 배교와 이방종교화(마리아 숭배, 교황제도 등)의 결정체이다. 천주교회는 온 세계를 영적 간음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이다(2,5절). 셋째, 천주교회는 역사상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6절,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지라.” 넷째,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9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산들의 이름은 팔라티누스, 퀴리날리스, 아벤티누스, 샬리우스, 비미니날리스, 에스퀼리누스, 카피톨리누스이다.³⁾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로마를 ‘일곱 언덕’(septem colles) 혹은 ‘일곱 언덕의 로마’(septicolis Roma)라고 불렀다.⁴⁾

셋째는 그 큰 음녀를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로 보는 견해이다.⁵⁾ 그러나 이 견해는 배교한 교회가 왜 일곱 산 위에 위치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로마 천주교회가 모든 개신교회들을 흡수하여 거대한 배교 단체로 진전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와 셋째의 견해는 하나가 될 것이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천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 광야는 참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숨은 곳이었다(계 12:6, 14). 거기서 사도 요한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다. 여자가 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계 13:1-7). 여자가 그 짐승을 탄 것은 배교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짐승의 색깔이 붉은 것은 그것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임을 나타낸다.

[4절]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은 것이나 금

1) 헨드릭슨, 조지 래드, 알란 존슨, 박윤선 등의 견해.
2) 벵겔, 알포드, 반즈 등 개신교 저술가들의 대다수.

3) Matthew Poole, III, 994; 유석근,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239.
4) 유석근,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 240.
5) 포셋, 비더울프, 렌스키, 월부어드, 김용조 등의 견해.

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것은 다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나타낸다.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사치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손에 든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에게는 영육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만 가득할 것이다.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부패할 것이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음녀의 이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비밀’이라는 이름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음을 나타낸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큰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역시 로마를 암시한다.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었듯이, 로마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었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릴 만하였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은 그 음녀가 영적으로 모든 우상숭배들과 거짓 사상들의 원천이며 또한 육적으로 모든 음란의 원천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것이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혹은 순교자들(KJV, NKJ)의 피에 취하여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 로마 천주교회는 역사상 약 5천만명을 죽였다고 알려지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 배교한 교회는 많은 진실한 성도들과 충성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임을 드러낼 뿐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본장에 예언된 음녀는 장차 나타날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장차 로마 천주교회(RCC)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연합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배교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인 로마 천주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를 주목해야 하며, 그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

또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주의해야 한다. 영적 음행은 자유주의, 우상숭배, 이단종파, 이방종교, 은시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받아들임으로 교인들의 사상과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을 가리킨다. 육적 음행은 음란과 동성애로 몸을 더럽히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은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우리는 불경건과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해야 한다. 결혼한 이들은 부부의 관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몸과 그 순결성을 깨끗이 지키며, 눈으로 보는 것과 이성 교제나 동성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옴

[말 3:7-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리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셨다. 그는 십일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강탈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다. 십일조의 법은 의식법으로 신약 아래서는 성취되었다고 본다. 신약 성도들은 이제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롬 12:1). 신약성경의 헌금 교훈은 “풍성하게 드리라”는 것이며(고후 8:7), 우리는 그것이 십일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모범대로 온전한 십일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아끼실 것이다. 우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보화이며 그의 아끼시는 아들들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또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핵안 ○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